

논문 초록

성명 (한자)	최영한 崔英瀚	소속	한국과학기술원
------------	------------	----	---------

제목	(한글) 1990년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의 이모저모 (영문) A Report on 1990 International Mathematics Olympiad
----	------------------------------------------------------------------------------------------

요약 :

Olympiad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한국의 성적이 갈수록 저조해져 수학 교육에 대한 반성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31회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한국 선수단(단장 윤육경 서울대교수)은 53개 참가국 가운데 32위를 차지, 29회와 30회 대회에 이어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우리 나라는 88년 제29회 호주대회에 첫 출전, 참가 49개국중 22위를 차지했으며, 작년 서독 대회에서는 참가 50개국중 28위에 머물렀다.

이번 대회 1위는 중국이 차지했고, 2-5위는 소련 미국 루마니아 프랑스의 손서였다. 올해 처음 출전한 북한은 중상위권인 19위를 차지했다.

1959년 루마니아에서 처음 개최된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는 세계 각국에서 선발된 고교생들이 참가, 수학 실력을 겨루는 "두뇌올림픽"으로 평가받고 있는 대회다.